

국제 유학생들의 한국어 학습과정에 대한 근거이론적 연구

김아영 · 강이화 · 김대현[†]
(부산대학교)

Grounded Theory Approach to the Procedure of International Students' Learning Korean

A-Young KIM · E-Wha KANG · Dae-Hyun KIM[†]
(Pusan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figure out the procedure of learning Korean for international students. A research question was set up as follows: What is the procedure of leaning Korean for international students in Korean universities? To achieve the research purpose, this study implemented a method of semi-constructed interviews. Nineteen international students participated in the interview. The collected data for this study included transcripts from each interview. The transcripts of 60 minutes of interviews with all the participants was audio-taped recorded. This study investigated the research question based on the grounded theory. The analysis of open-coding, axial-coding, and selective coding was used in the study. Results indicated that international students learned Korean in a daily basis, and then they adapted to academic Korean in their majored fields. Both personality and mother tongue influenced Korean language learning positively and negatively. International students' improvement of Korean was related in studying with Korean mass media such as TV soap dramas, talk shows, and songs. International students think that TOPIK(Test Of Proficiency In Korean) is not much related with their Korean language fluency. In conclusion, the researchers suggested to give more emphasis on academic training courses for Korean language and to improve the TOPIK in general academic Korean.

Key words : Korean language learning, Adaptation, Grounded theory

I. 서론

최근에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수가 급증하고 있다. 2008년의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와 결혼 이민자를 포함한 국내 체류 외국

인의 수는 2008년 현재 등록인구만 85만명을 넘어서고 있어 불법체류 및 비등록 인구는 110만을 선회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통계청, 2008). 그 중에서 국내에 유학 중인 학생들의 수도 매년 증가하여 2006년 32,557명, 2007년 49,270명으로 집

[†] Corresponding author : 051-510-2629, dnkim@pusan.ac.kr

계되고 있다(한국교육개발원, 2007). 이는 한류(韓流)와 한국 기업의 위상 제고에 따른 취업 기회 획득이라는 유학생들의 개인적 동기와 한국 정부의 유학생 유치 전략 그리고 대학의 재정 수입 증대와 국제화 추진 방안에 따른 결과로 보인다.

국내에서 공부하는 유학생의 수가 급증함에 따라 그들의 학업과 생활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커지고 있다. 유학생들이 얼마나 학업에 열중하며, 학업 수행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그들의 일상 생활은 어떠한가, 한국에서 생활하는 동안 어떤 불편함과 고통을 느끼는지, 이에 대한 우리 사회의 대처 방안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들은 아직 대중매체에서 간간히 다루어지는 기사에 불과하고, 학문적인 연구 대상으로 본격적으로 다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발표된 많지 않은 유학생 관련 연구물들을 분석하면 적응을 다루고 있는 것(허춘영, 1998; 최태일, 2001; 엄혜경, 2003; 김재우, 2005; 강이화, 김아영, 김대현, 2007; 김대현, 김아영, 강이화, 2007; 원효현, 강미라, 2002; 이경화, 정혜영, 2007)과 한국어 학습에 관한 것(이해영, 2001; 이은영, 2005a, 2005b; 장연, 2005)으로 나눌 수 있다. 전자는 교육학이나 사회학적인 관심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 대부분이며, 후자는 대개 한국어 전공자에 의하여 수행되었다. 그런데 유학하고 있는 국가의 언어 수행 능력과 유학생들의 문화와 생활적응 수준 간에 관련이 높다는 국내외 연구 성과(허춘영, 1998; 최태일, 2001; 장연, 2005; Shigaki & Simth, 1997; Wesche & Lee, 2000; Yeh & Inose, 2003; Brown, 2008; Tran, 2008)에 비추어 볼 때, 유학생들의 한국어 학습 과정을 밝히기 위해서는 그들이 한국에서 생활하는 모습과 방식을 함께 다루어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의 대학에서 공부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들의 한국어 학습 과정을 그들의 생활과의 관련 속에서 밝히는 데 목적을 둔

다.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주된 연구문제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한국어를 학습하는 과정은 어떠한가?’로 설정하였고 하위연구문제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였다.

첫째, 외국인 유학생들의 일상 한국어 습득과정은 어떠한가?

둘째, 외국인 유학생들의 전공 한국어 학습과정은 어떠한가?

셋째, 한국어 능력 시험을 위한 한국어 학습과정은 어떠한가?

넷째, 외국인 유학생들의 각 한국어 학습 영역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II. 선행연구 분석

우선, 본 연구와 관련하여 한국에서 공부하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한국어를 어떤 과정을 통하여 습득하는지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국내에서 이루어진 연구는 대부분 한국어 전공자에 의하여 수행되어 주로 한국어 교육의 내용 측면, 즉, 국어학적인 영역에 대한 관심에 치중되어 있다. 이들 연구를 분석하면, 대학에서의 한국어 교육 현황 분석(배현숙, 2001; 이해영, 2001), 한국어 교육의 목표 분석(임소영, 2003), 한국어 교육과정 분석(이해영, 2004), 한국어 쓰기 교육 현황 분석(이은영, 2005a; 안경화, 2006; 오지혜, 2008), 외래어 교육 방법 분석과 제안(이은영, 2005b)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연구는 내용면에서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대학의 한국어 교육 현황과 교육목적이나 교육과정의 분석, 쓰거나 외래어 등의 특정한 영역의 한국어 학습 방법을 다루고 있다. 연구방법 면에서는 설문지나 문서 분석을 통하여 현황을 분석하여 기술하고 있고, 규범적이거나 처방적인 방식으로 한국어 학습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한국어를 습득하게 되는 과정의 내적인 측면을 자세히

분석하거나 유학생들의 한국어 학습을 유학생 생활 전반과 연결시켜 밝히는 질적인 측면에서는 부족한 감이 있다.

다음으로, 국외에서 그 나라의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행한 연구를 살펴보면, 언어습득 수준과 대인관계 및 불안과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Roy, 1997; Qin & Likes, 2006; Brown, 2008), 주거양식 및 대화의 빈도와 언어습득 수준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Weches & Lee, 2000), 언어습득 수준과 사회적 지지 및 스트레스 정도를 분석한 연구(Yeh, 2003; Seo, 2005), 수업전략과 외국인 유학생의 수업 참여수준 및 학업성취도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Poyrazli & Kavenaugh, 2006; Tran, 2008)가 있다. 이중, Brown(2008)의 연구는 유학생들이 전공수업에 참여하는 양상을 언어학습과 관련시켜 학업적인 적응에 있어서의 좌절과 불안, 대인관계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하고 있어 주목할 만하다.

이러한 국외의 관련 선행연구들은 외국인 유학생들의 언어습득이 유학생 본인의 성격이나 생활환경 그리고 수업전략 등과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동시에 해외의 연구들은 근본적으로 한국어와 언어체계가 다른 영어를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고, 국내의 학교문화 생활문화와도 일정 차이가 있을 것이므로, 그 연구결과를 토대로 국내 외국인 유학생들의 한국어 학습 과정을 이해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유학생들의 한국어 학습 과정을 한국이라는 생활권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들의 학업생활과 일상적인 삶의 관련 속에서 밝혀내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다.

III. 연구 방법

본 연구는 P시에 있는 외국인 유학생들의 사례를 반 구조화된 심층 면담의 방법을 사용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근거이론적으로 분석하였다. 근거이론적 분석은 질적 연구의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체계화된 분석 절차를 제공하고, 탐색된 근거이론의 현장 환원을 중요시하는 방법이다(안정숙, 2001; 문성미, 2003; Strauss & Corbin, 1998a, 1998b; Glaser, 1992). 그러므로, 외국인 유학생의 한국어 습득 과정 분석과 같이 기초 연구가 미흡한 상태에서 가설이나 이론의 탐색적 연구를 하는데 적합성이 높다. 또한, 연구의 결과로 구축된 근거이론이 다시 현장으로 환원되어 교육현장의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여지가 크므로 외국인 유학생들의 한국어 습득 과정에 대한 연구는 근거이론으로 접근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하였다.

1. 연구 참여자

본 연구의 연구 참여자는 P시에 소재한 바다대, 국제대, 항구대, 해저대학과 그 대학원에 등록하여 유학생생활을 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 총 19명이었다. 연구 참여자의 유형, 즉 국적과 성별 등에 관한 정보는 <표 1>과 같다.

<표 1> 연구참여자의 유형

구분			계
국적	중국	10	19
	베트남	8	
	터키	1	
성별	남	5	19
	여	14	
소속	학부	11	19
	대학원	8	

연구 참여자들은 연구자들의 수업을 수강하고 있는 바다 대학의 중국인 유학생 2명, 해저 대학의 한국어 교사에게서 소개받은 베트남 유학생 1명을 시작으로 상호 소개를 통한 눈덩이 굴리기(snowball sampling)방법을 써서 구성되었다. 먼저 시작점이 된 연구 참여자들의 면담을 끝내고 난 뒤, 국적, 체류기간, 한국어 능력시험상의 한국어 수준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참여자들을 발

굴하는 방식을 되풀이하여 목적적, 이론적 표집을 하였다(Huck, 2000; Glaser, 1992).

연구참여자 개개인에 관한 기초적인 정보는 <표 2>와 같다.

2. 자료 수집

연구를 위한 자료 수집은 각 연구 참여자들과 60분가량의 심층 면담내용을 통해 이루어졌고 각 면담내용은 녹음하여 전사되었다. 연구자들은 각각 6명씩 연구 참여자들과 면담을 개별로 진행하고, 19개의 면담 중, 6개의 면담은 연구자들이 모두 면담과정에 참여하여 연구자 1인이 질문하고, 다른 연구자들은 면담내용을 기록하고 관찰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면담 질문은 문헌연구를 토

대로 한국어 학습의 계기, 한국어에서 잘 하고 자신 있는 부분과 어려운 점, 한국어 학습 방법, 전공수업과 한국어 능력 시험에서의 한국어간 차이를 묻는 영역으로 구성하였다. 심층면담에 사용된 질문은 반 구조화된 형태로 구성하였고, 질문지는 아래 <표 3>과 같다.

면담 과정은 처음에 연구 참여자에게 연구의 의도와 내용을 소개하고 연구 참여와 녹음에 대한 동의를 구하였으며, 일상적인 유학생생활의 경험을 이야기하여 먼저 친근감을 형성하였다. 면담은 한국어로 진행하였고, 연구 참여자들의 이야기 흐름에 따라 연구자는 질문지를 보면서 빠진 내용을 확인하면서 이루어졌다. 최종적으로 수집된 자료의 형태는 면담 내용이 담긴 오디오

<표 2> 연구참여자의 기초 정보

번호	이름	국적	소속 및 전공	성별	체류기간	한국어수준
1	링링	중국	바다대 국문과 석사과정	여	3년	상
2	가하	중국	국제대 경제학과 학부입학	여	1년	하
3	시엔	베트남	국제대 교환학생 한국어 문학부	여	1.5년	중
4	뜨엔	베트남	국제대 교환학생 베트남문학전공	여	1.5년	중
5	핀	베트남	국제대 한국어문학부 4학년	여	3년	중
6	자스민	중국	바다대 대학원 국문과 석사과정 3학기	여	2년	상
7	방상	중국	국제대 영어과 3학년	남	2년	중
8	비치	베트남	바다대 대학원 무역학과 석사과정 2학기	여	2년	상
9	끄영	베트남	바다대 대학원 무역학과 석사과정 2학기	여	3년	중
10	부이	베트남	바다대 대학원 경영학과 석사과정 2학기	여	3년	상
11	청해	중국	항구대 학부 1학년	남	0.5년	하
12	마르사스	터키	바다대 영문과 3학년	여	3년	중
13	왕은	중국	바다대 대학원 교육학과 박사과정 5학기	여	3년	상
14	청량	중국	해저대 국제통상학과 2학년	여	2.5년	중
15	방령	중국	해저대 국문과 3학년	여	3년	중
16	메이	베트남	바다대 대학원 무역학과	여	3.5년	상
17	뚜이	베트남	바다대 대학원 경영학과	남	1년	상
18	칭위예	중국	바다대 경영학과	남	2.5년	중
19	봉운	중국	바다대 경영학과	남	3.5년	상

<표 3> 면담질문지

1. 한국어를 배우게 된 계기/한국어 공부의 목적
2. 고향에서 한국어 학습을 한 경우, 한국에서의 한국어 학습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3. 자신의 한국어 수준을 어느 정도로 판단합니까?(1-10)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4. 자신의 한국어에 대한 교사와 동료들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5. 한국어 여러 영역 중에서 가장 잘 하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6. 외래어 등 한국어 단어외우기는 어떠했습니까?
6. 한국어 중에서 가장 자신 없거나 어려운 부분은 무엇인가요?
7. 자신이 생각하는 '한국어를 잘 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8. 한국어 수업과 전공수업에서의 한국어 습득은 어떻게릅니까?
9. 수업에서 한국어로 토론할 때 참여하거나 질문을 합니까? 그러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10. 전공수업에서 리포트 쓰기 등 한국어와 관련해서 수업자의 어떤 도움이 있었습니까?
11. 자신이 생각해낸 한국어 학습의 노하우를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까?
12. 전공한국어를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공부해야 합니까?
12. TOPIK시험의 한국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14. 한국어 공부하면서 가장 좌절을 느낀 적은 언제였습니까?
15. 한국어 능력시험에 나오는 한국어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한국어는 어떻게 다르거나 같다고 생각합니까?

파일과 이를 전사한 A4지 59쪽으로 구성된 한글 파일이었다.

연구 참여자들의 사생활과 인권 보호를 위해 모든 전사 자료 파일에서 인명표기와 소속대학은 가명으로 하였다.

3.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 분석방법은 Strauss와 Corbin(1998)이 제안한 근거이론적 분석방법을 적용하여 다음의 단계를 거쳐 실행되었다. 첫째, 개방코딩(open-coding)은 전사기록 자료를 여러 번 읽어 주요하게 드러나는 개념을 발견해내었다. 둘째, 축코딩(axial-coding)은 개방코딩에서 나타난 개념들 간의 관계를 설정하여 상호 연결시켜 패러다임에 배치하였다. 셋째, 선택코딩(selective-coding)에서는 유학생들의 한국어 학습 과정에 대한 내용을 하나의 이야기로 구성하고, 최종적으로 국제 유학생들의 한국어 학습과정을

모형으로 나타내었다.

연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개방코딩 결과를 놓고 각 연구자들이 개별적으로 주제 범주간의 관계를 설정하여, 축코딩 단계에서 논의하고 상호 공통된 부분을 연구결과 로 정리하였다. 유학생들의 한국어 학습과정에서 TOPIK(Test Of Proficiency In Korean:한국어능력시험)과 관계되는 범주와 특징을 해석하는 문제에서 연구자간의 의견의 차이가 나타났다. 이 부분은 질적 연구의 전통과 근거이론 방법에 대한 정기적인 세미나에 참여하는 박사과정 대학원생들과 논의하여 의견 차이를 부분적으로 해석에 포함시켰다.

IV. 연구 결과

1. 한국어 학습의 과정

외국인 유학생들의 한국어 학습 과정에 대한

인터뷰 결과를 분석한 결과, 총 31개의 개념과 21개의 하위범주, 8개의 범주를 발견할 수 있었다. 그 내용은 <표 4>와 같다. 개방코딩의 결과를 토대로 한국어 학습은 일상 한국어, 전공

한국어, 능력 인정 시험 한국어 학습으로 나누어지며, 이들 한국어 학습 과정 간에 차이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또한 이들 한국어 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보편적 요인이 있는 반면에 학습 영역

<표 4> 개방코딩의 결과

범주	하위범주	개념
적극성은 한국어 실력향상에 도움이 됨	적극적인 성격 -한국인 친구	활발하고 적극적인 성격은 한국친구를 많이 사귀는데 도움을 주고 일상 한국어 능력 향상을 가져옴
어학에 대한 감각이 한국어 적응과 관련이 있음	어학에 대한 관심	어학이 재미있고 관심이 많으면 한국어 공부도 열심히 하게 됨
	다른 외국어에 대한 성공적 경험	외국어를 좋아하면 한국어도 잘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여김
모국어의 영향이 큼	모국어의 긍정적 영향	한자를 많이 알아 한국어를 쉽게 배움
	모국어의 부정적 영향	모국어 때문에 발음이 이상함 모국어를 잘 구사하면 한국어도 잘 구사하는 경향이 크다고 생각함
	모국어와의 관계	쓰기는 국적을 막론하고 전공과 관련이 많음 모국어로 이야기하기를 좋아하면 한국어도 잘하게 됨
한국어 공부 방법	매체를 이용함	한국가요를 듣고 받아쓰기를 함 한국책을 읽음 예능쇼를 보고 공부함 한국 드라마와 한국영화를 많이 봄
	한국 친구들과 이야기함	한국친구들을 많이 만남
한국어 능숙도 판단	한국어 능숙의 정도	한국어를 잘한다는 것은 자연스러움이라고 생각함
		한국인만큼 한국어를 잘해야 함 전공내용을 가르칠 수 있을 만큼 한국어를 잘해야 함
토픽시험	문법중심의 시험	토픽 문법이 어렵다고 느낌
	토픽시험의 간극	토픽시험은 일상한국어와 거리가 있다고 생각함
	토픽은 시험임	토픽시험은 정답만 골라야 하는 시험 준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함
한국어의 어려움	발음	어려운 발음 때문에 곤란했던 경험을 겪음
	쓰기	쓰기가 힘들다고 느낌
	뉘앙스	한국어 특유의 뉘앙스를 파악하기 힘들 한국어에서 이해하기 힘든 부분을 만남
전공한국어	전문분야 어휘의 부족	전문용어 때문에 수업한국어에 어려움을 겪음
	배경지식의 부족	배경지식의 부족으로 전공한국어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생각함.
		내용을 알아야 수업한국어를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함
		전공수업은 에너지가 많이 소모됨
	한국학생과 교수의 시선을 의식함	막연한 염려 때문에 수업 중에 질문이나 토론을 하지 못함
	한국어를 연습함	발표는 연습을 해야 할 수 있음
	사투리가 방해함	사투리를 알아듣는 것이 어려움
수업 토론참여가 어려움	자기가 말할 때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 수업 중에 나서서 게 꺼려짐	

별로 특정한 요인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가. 일상한국어의 습득

유학생들이 처음 한국어를 배우기로 마음먹은 계기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진다. 학습동기에 따라서 상호 겹치는 영역이 생기기도 하지만 고향에 있는 한국계 기업에 취업하기 위한 것, 한국의 대학이나 대학원에 유학을 준비하기 위한 것, 한국 드라마와 영화, 가요 등을 통해 한국 연예인을 좋아하게 되고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어를 익히고 싶다는 마음에 따른 것이다. 일단, 한국에 입국하고 나서 유학생들이 가장 먼저 접하게 되는 부분은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한국어이다.

(1) 생활 속의 단어들을 익힘

유학생들은 고국에서 미리 한국어를 배우고 온 경우이든, 그렇지 않고 한국에서 한국어 학습을 시작한 경우이건 간에 일상생활 속에 사용하는 어휘와 표현들을 먼저 익히게 된다.

링링: 책에서 배운 거랑 달라요. 자연스럽게 말하지 않는 사람은 '집에서 잘 쉬세요' 말할 거예요. 그런데 자연스럽게 말하면 '폭 쉬세요' 할 거예요. 그리고 '방콕' 같은 말도...

왕은: '오뎅' 같은 말 있잖아요, 사실 저는 한국에 와서 처음 알았어요.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몰랐고.

뚜이: 처음 왔을 때 그 식당에서 주문할 때, 뭐뭐뭐 두 개 주세요. 두 개를, 우리는 이 개 주세요. 아, 그래요. 그렇게 했어요. 요즘은 '두 개 주세요.' 해요.

외국인 유학생들의 한국어 학습은 한국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표현을 알게 되거나, 한국에서만 습득할 수 있는 어휘들에 익숙해지면서 시작된다.

(2) 활발하고 적극적인 성격을 활용함

유학생들은 각자의 성격에 따라 일상에서 사용하는 한국어를 연습하거나 사용하는 기회를 많이 갖기도 하고, 혼자서 지내거나 모국어가 같은 학생들끼리 어울리면서 한국어 습득의 속도가 늦어지는 경험을 하기도 하였다. 유학생들의 일상 한국어 습득에는 성격적인 요인이 주요하게 작용하

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명랑하고 활발하며, 적극적인 성격은 한국어를 학습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하였다. 활발한 성격은 한국인 친구들을 사귀는데 보다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게 해주고, 한국인 친구들과 친해져서 이야기를 나눌 기회를 많이 가지면 한국어 학습에도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하였다.

시연: 저요, 아마 제일 자신 있는 부분은 말하기, 저는 말이 너무 많은 사람이니까. 그래서 선생님과 많이 이야기하고 한국어로 많이 이야기해서 아마 말하기 발음보다는...

핀: 저는 원래 그냥 내성적이거든요, 별로...

마르사스: 저 터키말도 되게 빨라요, 원래 말을 많이 하고요,

자스민: 저 성격이 활발해서 다른 박사 친구들 쉽게 사귄 수 있는 거 같아서...그리고도 국제대 다녔을 때 학교에서 도우미 소개 해줘서 학기마다 저도 도우미 두 명 있었어요. 도우미도 사귀고 도우미의 친구들도 알게 되고, 밥 먹고, 이야기하고, 한국 친구들 많이 사귀어서 한국말 도움이 많이 됐어요.

반면, 내성적인 성격인 경우는 본인들도 한국어 학습에서 일정부분 손해를 보았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유학생들은 결국, 언어학습에 적극적인 태도와 활발한 성격은 한국어 적응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고 이야기하였다.

링링: 제 생각에는 대학교, 가만 앉아가지고 공부하는 거 없어요. 그거는 제 후회했어요. 가만 앉아서 열심히 공부하면, 어휘 안 늘어요, 그런 생각 후회했어요. 예를 들면 한국 친구 도움 필요하면 적극적으로 도와달라고 하고...

꼬영: 그 뭐, 한국어 친구 많이 사귀고, 한국어로 많이 이야기하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관심을 많이 가져야 해요, 지금 봄이잖아요. 벚꽃이 베트남에는 없어서 몰랐지만, 아, 이 꽃이 뭐지 하고 물어보고 적극적으로 해야 해요. 처음엔 사람의 성격이고... 자주 만나고, 이야기하고...

뚜이: 제가 보기에 적극적으로 공부하는 사람, 공부 하는 책에서만 아니라 밖에 나가서 친구랑 이야기 하는 사람이요.

일반적으로 적극적인 성격의 경우, 언어학습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태도로 임하기 때문에 스스로 한국어에 노출되는 기회를 자주 만들고 연습의 기회도 많이 가져서 한국어 실력이 늘게 되는 것으로 이야기하였다.

(3) 다른 언어의 학습 경험을 이용함

유학생들은 자신의 모국어나 영어와 같은 외국어를 공부했던 경험을 활용하여 한국어 학습을 하는데 적용하기도 하였다. 국제 유학생들은 자신들의 모국어가 한국어 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하였는데, 모국어의 종류에 따라서 어떤 부분은 한국어 학습에 유리하게 작용하기도 하고, 또 어떤 다른 부분은 한국어 학습을 방해하기도 하였다. 모국어가 터키어인 경우는 어순이 같아 한국어 학습에 유리하다고 하였고, 중국어는 어순이 달라서 처음에 불편을 겪는다고 이야기 하였다.

마르사스: 터키 말 순서랑 한국말 순서랑 똑같아요. 약간 똑같아요. ‘을/를’은 있어요, 있기는 있지만 한국어처럼 중요하진 않아요. ‘이/가’도 있는데 중요하지 않아요. 속담 같은 것도 약간 비슷한 것도 있어요, 터키말, 한국말이랑 어순이 같아요. 우리 우랄 알타이어계라서...

청해: 또 문법이 어려워요. 중국하고 문법이 틀려요. 우리는 다 중국에서는 그 영어 I am a student. 이렇게. 그 한국에서는 저는 student 앞에, ‘입니다’는 뒤에 와요. 문장 순서가 틀려요.

중국어의 경우는 한국어에 한자로 구성된 말들이 많아서 사자성어나 단어의 뜻을 추측하는 데는 유리하다 생각하였지만, 발음은 중국 발음을 쫓아가기 때문에 정확한 한국어 발음을 구사하는데 부정적인 기능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베트남 학생들은 베트남어 특유의 6성조의 영향으로 한국어 발음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하였고, 이 때문에 오해를 산 경우도 있다고 하였다.

링링: 발음, 발음인데, 아직 많이 부족해요, 왜냐면 제일 어려운 거 받침인데, 중국어에 받침 없는 거 아시죠? 열심히 연습해야 돼요, 하나 틀리면 분명히 알고 있는데, 말을 할 때는 틀려요.

비치: 발음. 저 부끄러웠어요. 첨에는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잃어버렸어요, 첨에는 그런 못 했어요. 기다리다. 잃어버리다, 발음이 너무 어려워요, 똑같잖아요, 기다리다, 잃어버리다, 비슷비슷 하잖아요, 그래서 힘들었고, 자주 많이 틀렸어요. 제가 전에 영화다큐 인터뷰 한 적 있어요, 뭐가 가장 힘들었냐는 말에 ‘언어’ 때문에 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놀랐어. ‘너 때문에’ 하는 줄 알고요...(웃음)

봉운: 어제 학과 사무실에 가서 □□학과 사무실 어딘지 못 찾겠습니다. 그 사람이 ‘위쪽’으로 가십시오, 빨리 말하면 우리는 구별 못 합니다. 위쪽인지, 이쪽인지, 그 사람 따라 갔습니다. 그 사람이 왜 따라 오냐고, 위쪽으로 가라고요, 그때 우리 4명이었는데 모두 다 ‘이쪽’으로 가십시오라고 들었습니다.

중국 학생들은 중국어에는 없는 받침이나 발음을 올바르게 말하기가 힘들다고 하였고, 베트남 학생들의 경우도, 공통적으로 한국어의 억양과 자신들이 말하는 억양이 달라서 어려움이 있다고 이야기 하였다.

또한, 한국어 수준이 중상 이상인 국제 유학생들은 영어를 잘 했던 경험이 있거나, 영어에 능숙한 경우가 많았다. 영어에 어느 정도 익숙해지기까지의 학습과정을 겪은 학생들은 한국어 학습 역시 영어 학습과 유사한 방법으로 습득하였다는 이야기를 하였다.

마르사스: 저는 그때 영어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다른 학교 애들이 아, 재는 영어 정말 잘하는 애더라고 다 알았어요. 길에 가다가도 뭐 모르는 단어 생각나면 집에 다시 돌아가 사전 꼭 찾아보고 그랬어요. 1년 진짜 많이 했어요.

자스민: 원래 영어 학교가 공지사항 나오고, 학교가... 가고 싶은 학생들 신청하고 뽑아요. 시험치고, 근데 시험은 영어시험이었어요. 그때 제가 영어라서 좀 잘했어요. 그때는 1등 받아서 학비 한 학기 돈 받고...

연구 참여자들의 면담 내용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영어를 잘 하는 국제 유학생들은 한국어 학습도 그리 어렵지 않았으며 중간 이상의 수준에 올라와 있음을 보여주었다. 영어라는 다른 외국어를 익히는데 성공했던 경험은 한국어 학습의 자신감이나 공부 방법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였다.

(4) 다양한 생활 경험을 활용함

유학생들은 한국에서의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도 한국어를 학습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하였다. 면담 내용을 분석하면, 한국에서의 아르바이트 경험이 많은 연구 참여자의 경우는 객관적인 한국어 숙달 수준에 상관없이 자신의 한국어 실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메이: 저는 음, 저는 아르바이트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아르바이트 말 많이...(알아요). 뭐 그 저는 공장에서도 (아르바이트) 해 봤어요. 예, 서빙도 하고, 주방도 했어요. 그 때 한국어를 많이 배운 것 같아요. 아르바이트를 하면은 말 연습도 많이 하고, 듣기 연습도 많이 하고, 음, 좋아요.

끄영: 많이 해봤어요. 식당에서 일한 적도 있고, (베트남어)과외도 해 봤고, 식당에서 일 해봤어요. 호아빈(베트남 쌀국수 집)...거의 다 한국말로 해요. 왜냐하면 거의 다 한국 사람이니까. 혹시나 베트남 손님 오면 베트남 말로 주문받고...

한국어 수준이 초보적임에도 불구하고 이 학생들은 스스로 한국어를 잘한다고 생각하였으며, 아르바이트 경험이 많은 유학생들은 일하는 곳에서 사장과 손님들, 같이 일하는 동료 직원들의 칭찬을 많이 들었던 탓에 본인이 한국어를 잘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유학생들은 신문, 잡지, TV 프로그램 등의 한국어 매체에 노출되는 일상적인 경험을 통해 일상한국어 실력향상을 꾀한다고 하였다.

청량: 노래 자주 듣고(동방신기) 받아쓰기해요. 버스를 탈 때 아니면 걸을 때 한국어 테

이프 듣고요.

메이: 저는 지금도 유재석, 강호동 프로그램 많이 보고 단어를 공책에 적고 나중에 사전 찾고 다시 보면 그 단어 알아들어요.

끄영: 뉴스 자주 봐요. 그냥 텔레비전에 보는 뉴스는 이해 못하고 그냥 다시 듣고 싶어도 못하잖아요, 그래서 인터넷 네이버 닷컴 같은 데 들어가서, 인터넷에서는 어떻게 말하지? 그 뉴스의 내용도 옆에 다 나오잖아요. 기사 말이 들어와서 그래서 같이 듣고, 모르는 말은 들어가서 보고 듣고, 그래서 원본을 볼 수 있잖아요.

한국인 친구들을 많이 사귀고, 사귀 한국인과 이야기하는 기회를 최대한 자주 만들어 자기의 한국어 실력을 유지하거나 높이는 방법도 사용한다고 하였다.

왕은: 또는 한국 사람하고 많이 교류하고 얘기 많이 하는 게 좋죠., 능동적이어야 한다, 한국인과 교류하고 얘기하며 늘었다, 과외하며. 한국 사람 가르칠 때 자기는 중국어 안 늘고 나만 한국어 늘었다고 해요.

(5) 외래어 학습의 어려움

유학생의 한국어 학습에서는 특히, 외래어와 관련된 에피소드들이 자주 등장하였다. 연구자들이 인식하지 못했던 한국어의 특징이 드러났고, 유학생들은 한국어 학습에서 외래어에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학생들이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외래어는 한자조어가 아닌 주로 영어가 외래어로 변환된 경우였다. 외래어 학습이 어려운 이유는 영어 단어를 그대로 도입하여 소리나는 대로 한국발음으로 표기하여 굳어진 단어가기 때문인데, 외래어의 발음을 듣고 영어단어를 연상하여 뜻을 알아내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끄영: 외래어 커피...어려운 거 아니고요, 줌 웃겨요, 왜냐면 영어와 많이 틀리잖아요, 엘리베이라, 한국 사람은 '엘리베타' 라고 얘기하잖아요, '크리스마스'(영어발음)도 크리스마스라고 하고. 그리고도 혹시 그런 말 아세요? 컨디션, 뜻에는 기분이 좋다 맞아요? 아니면 상태가..? 몸이 좋다? 그런데 영어로 쓰면 조

건이잖아요, 왜 한국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너무 웃겨요. 저 처음에 들었는데 한국친구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 컨디션이 뭐냐고...(웃으며)

뚜이: 그건 좀 싫어요. 블랙, 크리스마스 그런 말은 자주 들으니까 좀 괜찮은데 처음 듣는 말은 정말 이상했어요. 외래어가 가장 어려워요.

청해: 영어 있는데 발음 조금 틀려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포토포 이런 거 하고 또 센터. 정확한 영어발음은 '센너' 그렇게 안 하니까 발음 진짜, 허허(웃음)

자스민: 영어 외래어는 처음에 듣기 힘들어요. 우리도 영어 배우는데 한국사람 그 발음 아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좀 듣기 힘들었어요. 그리고 한국 콩글리시 그런 거 첨엔,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지금 영어 원어민 친구랑 이야기할 때도 발음 좀 이상해졌어요. 콩글리시로 영향 많이 받았어요. 이거 영어 봤을 때 발음이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헷갈려요, 줌. 그래서 지금 텔레비전 이렇게 하면 줌... 텔레비전 이렇게 하면 줌 이상하다고, 원래 '텔레비전(영어발음)' 이라고 해야 하는데 지금 그냥 그게 더 이상하잖아요.

(6) 한국어의 미묘함에 어려움을 느낌

모국어가 한국어인 연구자들은 한국어의 어휘 속에 담겨 있는 미묘한 차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들의 한국어 학습 중에 발견해낸 한국어의 뉘앙스 차이를 지적하며 이것이 한국어 학습의 어려움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하였다.

끄영: 전 이렇게 너무 재미있는 기억이 하나 있었어요, 친구가 기생충약이 사고 싶었어요. 배가 아프잖아요, 근데 사전에서 찾았는데 기생약이 무엇인지 몰라서 사전에서 찾았어요. 그래서 약국 가서 살충제 그렇게 물어봤는데 약사님? 이 깜짝 놀랐어요. 이게 나무에 주는 약이라고...(웃음). 그래서 이게 나무에 병, 생긴데 주는 약이에요, 사람 먹는 거 아니에요, 여기 안 팔아요(계속 웃음) 그래서 의사선생님은 또 답을 가르쳐 주더라고요. 어떤 약인지...(다시 웃음) 만약에 그냥 그 사람이 생각 없이 주면 큰일 나잖아요. 그런 일 있었어요. 친구 아파서 그랬어요, 그 당시에 그런

약 이름 몰랐어요. 재밌었어요.

비치: 요즘 제가 한국어 책 잠깐 읽고 있어요. 달콤한 우리 도시(소설, 정이현 저, 달콤한 나의 도시를 말하는 것임). 그거 많이 어려운 말 많아요. 특히 한국 사람들이 쓰는 단어, 특히 뭐, 예를 들어서 사랑스러운, 그렇게 표현을 할 줄 몰라요. 그런데 사랑스럽다가 정확하게 무슨 뜻이죠? Lovely?

주로 유학생들이 토로하는 한국어 뉘앙스의 미묘함은 '살충제'와 '구충제'와 같이 모국어와 한국어간의 사전에 동일어로 취급되어 있는 경우에도 나타났다. 또한 '사랑스럽다'와 '예쁘다'와 같은 유사어의 각기 다른 쓰임이 사전에 잘 드러나지 않는 단어에 대한 것이었다. 그리고, '-하군요' 와 같이 우리말로도 정확한 뜻을 설명해줄기가 곤란하고 맥락과 상황의 쓰임에 따라 단어의 뉘앙스가 달라지는 단어를 어려워하였다.

나. 전공한국어의 적응

(1) 한국어로 된 전공 용어를 몰라서 수업을 따라가지 못함

유학생들은 전공 수업에 들어가기 시작한 초기에 수업을 거의 알아듣지 못하는 경험을 하였고 이야기하였다.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자신의 전공에서 사용되는 용어들을 한국어로 모르기 때문이었다고 지적하였다.

메이: 교수님 말 단어 자체를 알아듣는데 그 내용을 알 수 없었어요.

비치: 무역 언어 몰라요. 다양한데, 전에 무역 단어 공부하지 않아서 지금 시작하면 다 새로 단어이니까, (베트남어로는 무역을 잘 안다) 그리고 선생님이 설명할 때 영어로도 설명해서 근데, 그 발음, 영어발음 베트남 사람과 달라서...(몰라요) 그 단어는 알았는데 선생님이 발음할 때 무슨 말인지 몰라요.

전공의 용어는 각 학문 영역에서 고유하게 사용되는 전문 어휘이며, 이러한 단어들은 본래 영어로 구성된 용어라 하더라도 한국의 학문 체계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과 용례를 알아야만 하기 때문에 유학생들은 마치 새로운 언어를 접하

는 느낌으로 전공의 한국어와 처음 마주했던 경험을 이야기 하였다.

(2) 전공에 대한 배경지식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음

유학생들은 전공 수업의 첫 학기에는 내용을 절반조차 알아듣지 못하고 수업을 따라가지 못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 외국인 유학생들은 자신들이 전공 수업의 초기에 한국어를 잘 알아듣지 못하고 발표나 토론에서 한국어를 잘 구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배경지식의 부족 때문이라고 이야기 하였다. 내용을 알지 못하면 수업을 알아들을 수 없기 때문에 책을 미리 읽어가거나, 인터넷에서 모국어로 전공 용어나 내용을 사전에 파악해 가는 것을 전략으로 삼고 있었다.

부이: 학부 때는 국제대 한국어 했는데 무역 하니까 수업 갑자기 어렵구요, 잘 못했어요. 어려워서 우리 과에서 베트남 학생 없고 중국학생 2명, 3명 있고, 다 한국 사람이니까 교수님이 수업 한국말 빨리하고, 정말 포기할라 했어요. 우리 무역학과 경영학과 아니거든요, 국제대학교(에서)는 한국어(전공)라서 우리 전공단어, 전문적 단어 잘 모르겠고요, 그래서 처음 들었을 때 진짜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비치: 너무 어려운 주제로 이야기 하고 금융 같은 거, 아니면, 또 뭐더라? 아니면 금융에 대해서도 많이 이야기하고 기업의 환경 같은 것도 많이 이야기해서 이해하기 어려워요. 마케팅 같은 거도 이야기하고, 그런 거 한국 사람이더라도 이해 못하잖아요, 저도 원래도 백그라운드 없잖아요, 무역학과 나온 사람 아니에요, 한국말 많이 배우고, 한국말만 배운 사람이라서...

유학생들은 처음에 수업에서 자신들이 내용을 쫓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한국어 실력이 부족해서라고 생각하였다가, 이내 그 문제가 한국어에 관련된 것이라기보다 전공 지식과 내용에 대한 것임을 깨닫게 되었다고 하였다.

부이: 오랫동안 들으면 진짜, 힘든 것 같아요. 그냥 뭐 한 문장 한 문장 서로 이야기하면 가만히 있고, 상대방 계속 이야기 하면 한 5분

지나면 더 이상 들을 말이 없어요.(5분 이상 들으면 피로해져서 안 들린다는 뜻)

칭위예: 잘 못 알아듣습니다. 내용도 모르는 내용이고...그래도 중문과 학생들 있어서 같이 하는 건 좋습니다.

왕은: 첨엔 착각을 했어요. 내가 공부 못 하는 것은 한국어를 못해서 인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교육학 교육과정에 관한 내용이 없으면 안 되는 거 같아요. 전공자체의 내용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면 못 할 거 같아요. 한국어는 잘해도.

유학생들의 전공 한국어에 대한 영역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모르는 내용을 한국어로 듣고 이해하려니 전공 수업의 내용 자체가 힘들다는 점이었다. 모국어로 이미 해당하는 내용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자신의 전공에서 사용되는 전문 용어와 뜻이 한국어로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 경우 역시 수업을 이해하며 쫓아가기 어렵게 하는 부분이라고 하였다.

(3) 막연한 두려움이 수업참여를 방해함

일반적인 예상대로 외국인 유학생들의 상당수는 수업의 발표나 토론에 적극 참여하는 것을 꺼려하거나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근본적인 원인은 전공 한국어에 대한 숙달도가 떨어지기 때문이지만 이들이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원인은 막연한 염려나 불안에 기인하는 것이었다.

링링: 말하면 혹시나 유치한 문제할까봐. 지금 만약에 제가 하라고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용기가 없어서요. 가끔씩 선생님께 예습해야 되는데, 너 왜 예습 안 해, 선생님이 말을 안 하셔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옆에 사람은 (알게 되어 있다는 뜻)...

비치: 자신 없어서. 한국말에 대한 것도 있고, 지식에 대한 것도 있고, 우리 모르는 거 다른 사람은 다 알까봐서요. 다른 사람 다 무역학과라 학부부터 무역학과라 기본지식 다 알고 계시고, 우리 그냥 모르는 거 물어보면 부끄러워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 같아요...서...

왕은: 물어보시면 제가 얘기하고 안 물어보고

제가 일부러 나서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 보는 거 같아요. 나는 그런 거 별로 안 좋아요.

이들은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말하거나 토론에 개입해 보지 않고 미리 수업에서 외국인이라는 사실로 다른 학생들의 주목을 끌까봐 참여를 꺼리고 있었다. 그러나 순서가 정해져서 수업에서 진행되는 부분을 나누어서 발표해야 하는 경우는 유학생들은 나름대로 연습을 하여 발표를 준비한다고 하였다.

자스민: 근데, 만약에 교수님이 우리한테 이해하냐고 하셔서 사실 우리 이해해요. 근데 우리 이해한다고 해서 앞에 칠판에 여러분한테 설명해봐, 우리 설명 못해요. 다른 사람 설명 봤는데 아, 나도 할 수 있구나 이해해요. 저 같은 경우는 말해야 되는 글 전부 (발표 유인물) 옆에 썼어요.

왕은: 가장 자신 없는 것은 발표. 진짜 달라요. 쌤도 생각해보세요. 저처럼 한국말 잘하는 사람도 힘들어요. 유학생한테 진짜 힘들어요. 앉아서 마음대로 말하는 건 괜찮은데 내용가지고 하는 발표는 자신 없어요. 그냥 억지로 했죠. 하고 나면 기분 안 좋아요. 많이.

발표로 수업이 진행되는 대학원 수업은 유학생이라도 순서가 돌아오기 마련인데, 미리 시나리오를 써서 연습해 보고 발표를 한다고 하였다. 또한 수업 중에 교수가 질문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한국인 학생의 대답을 들으면 자신들도 할 수 있는 답변이었다는 것을 깨닫는다고 하였다.

(4) 사투리의 장벽에 부딪침

본 연구가 P시의 사례로 수행되었기 때문에 유학생들은 전공 수업에서 사투리를 알아듣고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이들은 일상생활의 재래시장 같은 공간에서 사투리를 접하고 당황하기도 하지만, 외국인 유학생들이 자주 이야기하는 사투리에 대한 내용은 전공 수업의 교수들이 구사하는 사투리를 알아듣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점이었다.

비치: WTO 아세요? World Trade Organization,

그래서 선생님 말하는데 알아듣기 힘들었어요. 그리고 교수님이 선생님보다 아마 연배가 몇 배는...사투리가 심해요. 그때 선생님 뭐라더라?

뚜이: 긴 문장은 머릿속에 해석하고 있는데 지나가고, 교수님은 다른 문장으로 옮기니까 제가 조절하는 속도가 어울리지 않아요. 사투리는 교수님 한분이 심하셔서...할아버지 교수님들은 진짜 심해요, (웃음)

청해: 요즘 교수님 사투리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아마 좀 이해 잘 못해요. 한국어 공부할 때 사투리 안 공부해요.

봉운: 사투리요? 이제는 더 이상 그런 거는 문제가 안 돼요. 이제 사소한 발음 차이를 구별 잘 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죠.

국제 유학생들은 한국에서의 체류기간이 어느 정도 누적되고, 전공 수업을 듣는 학기가 더해감에 따라 교수들의 사투리에 익숙해지고, 심지어 자신들도 일부러 사투리를 배우기도 한다고 하였다. 국제 유학생들의 전공 한국어 습득에서 사투리는 어려움을 주는 요소로 작용하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보였다.

(5) 학문적 글쓰기에 어려움을 겪음

유학생들은 전공 수업을 수강하는 동안 한국어로 글쓰기를 해야 하는 과제를 마주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요약물 해가는 '리포트'의 경우는 읽는데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헤갈 수 있지만, 학문적 분석이나 감상을 요구하는 과제의 경우는 일상 한국어에 잘 적용되어 있는 경우라도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한국에서 '원서'로 통칭되는 영어로 된 교재가 수업의 주요 자료로 사용될 때에도 영어를 자신의 모국어로 번역해가며 읽고, 이를 다시 한국어로 번역하여 정리해야 하기 때문에 읽기에서 이중의 부담이 있다고 하였다.

마르사스: 예를 들어 리포트 쓰잖아요? 한국말로 읽고, 예를 들어서 한국(사람) 한번만 읽으면 되는데, 나는 세 번, 네 번 정도 읽어야 되고, 근데 한국어 사람 같지 않아요, 모르는 단어도 너무 많고, 예를 들어서 리포트 쓰는

것도 그렇고. 또 예를 들어서 한국학생 2시간 들여 쓴다면 난 6시간 들여서 써요.

자스민: 리포트를 자기 생각 쓰는 거 아니고 논문 정리 요약 그런 거는 쉬운 편이에요. 왜면 그런 거 이것 무엇인지 다 정리되면 돼요. 다 정리됐어요, 자기 논문 써 본적이 없어요. 왜냐면 지난 학기 저 한 과목 음운론 수업인데 교재 다 영어고, 옛날에 (중국어로도) 음운론 배운 적이 없어서 그 과목 포기했어요. 지난 학기는 세 과목 신청했는데 (자기 논문 쓰기 못해서)한 과목 포기했어요.

유학생들은 일상에서 한국어로 이야기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 해도 한국어로 글을 쓰는 일은 또 다른 문제라고 하였다. 학문적 글쓰기는 한국 대학생들도 따로 익혀야 할 만큼 쉽지 않은 부분이다. 더구나 유학생들은 전공 지식을 한국어라는 새로운 외국어를 통해 익히기 때문에 자신들의 머릿속에 모국어로 정리된 내용을 다시 제대로 한국어로 표현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많다고 하였다. 단순 요약이 아닌, 논문을 읽고 소감을 쓴다거나, 수업자가 정해준 텍스트를 읽고 분석해가는 등의 학문적 글쓰기는 '한국어→모국어→한국어' 라는 세 단계를 거쳐서 글쓰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간도 많이 걸리고, 결과물에 대한 수업자의 피드백도 그다지 좋지 못해 연구 참여자 상당수가 힘들음 호소하였다.

유학생들이 전공에서 사용되는 한국어 학습에 대해서는 모국어의 인터넷을 사용하여 내용을 익히고 리포트를 누적하여 제공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활용하여 한국어의 학문적 글쓰기에 익숙해지는 나만의 방법을 고안해내기도 하였다.

링링: 중국에서 어떻게 설명하나, 제 생각에는 비교문화 하고 있죠, 문학에 대한 지식, 자기 나라 언어 다 해야 돼요, 외국어도 중국에서 책을 사라, 뭐 대중대중 무슨 개념, 인터넷을 보면 알아요, 머릿속에서 뭔가 이렇게, 나중에는 한국어 책을 보면, 아 이렇구나,

메이: 그 (전공수업관련) 사이트 들어가 가지고 리포트 내용 확인하고 읽어 보고 중요한 내용 카피하고 베트남어로 된 자료 있으면 찾아서 번역하고 합쳐서 내요.

다. TOPIK; 시험을 위한 시험

유학생들은 한국어 학습에서 TOPIK(한국어능력시험)에 대한 언급을 자주 하였다. 이는 본 연구를 설계할 때 연구자들이 염두에 두지 않았던 부분이었다. 그러나 면담 내용을 분석한 결과, 국제 유학생들은 TOPIK에 상당한 비중을 두고 있었다. 하지만, 그 중요도에 비해서 유학생들은 TOPIK이 일상에서 사용되는 한국어 실력이나 수업에서의

한국어 이해와 관련이 없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비치: (웃으며) 선생님 혹시 토픽 책 보셨어요? 아마 선생님도 아마 답은 정확하게 모르는 것 같아요, 저희 한국어 선생님이라든가 이 문제 물어보고 난 몰라요, 모르테요. 그래서 친구들이 왜냐면 시험이라서 시험 적응해야 되요, 배우고...이제는 답이 그 동안에도 많이 배우잖아요, 많이 외우고, 시험 쳤어요, 많이 잊어버렸어요, 지금 5급을 치면 통과할 수 있을까?

방상: 토픽에서 치는 한국어 다 문어예요. 문법도 어휘도 다 문어, 문어체 많아요. 근데 우리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한국어는 쉽고, 또 다 해요, 왜냐면 우리 한국 이런 교환, 이런 거는 한국어는 이야기 하면 의사소통 할 수 있고, 만약에 이런 정도 토픽 한국어에 대한 내용, 열심히 공부 안하면 토픽 아마 5급 딸 수 없어요. 왜냐면 거기 나오는 거 다 문어(체 이거든요).

TOPIK은 유학생들이 학부나 대학원에 입학하기를 얻을 때, 혹은 입학이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한국어 수업을 면제받을 수 있는 조건이기도 하므로 신경을 써서 준비하는 시험이었다. 그러나 외국인 유학생들은 시험은 시험일뿐이기 때문에 TOPIK의 높은 점수가 한국어에 능숙함을 의미하지도 않으며, 정답만 골라야 하는 연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방상: (한국어 잘해도 토픽시험) 아마, 낮을 수도 있어요, 아는 친구 미안마 친구예요, 친구 한국에서 뭐 2년, 아 지금은 3년 동안 아

마 4년? 아마 살았어요, 그 친구는 한국어 대화나 문장 한국어처럼, 한국 사람처럼 잘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친구 토픽 시험 토픽 시험 6급 제일 높은 거 안 됐어요... 토픽 시험 좋은 점수 받으려면 토픽에 대한 내용 따로 공부해야 돼요. 문법이나 쓰기, 뭐 따로 공부해야 돼요.

링링: 어휘, 문법, 힘들어요, 왜냐면은 큰 마음 먹고 자리에 앉아가고 한참동안 배우면 그거도 효과적이에요. 한국어시험도 문법 때문에. 여기서 쓰는 언어랑 시험에 나오는 말이 달라요.

부이: 토픽 시험에 쓰기 있잖아요, 어떤 지문이 나오고 또 하나 그 읽기 연습 내에서 지문이 나왔는데 그 지문이 우리 정확히 이해해야 돼요. 근데 정확하게 못하면 하나만 틀려도 점수 안 나와요.

유학생들의 한국어 학습이 TOPIK의 점수를 따는 목적으로 시작한 경우는 시험을 준비하면서 어휘나 문장학습이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대부분 유학생들은 TOPIK을 일상한국어 회화나 전공수업에서 사용되는 한국어와도 다른 특별하고 독립된 영역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각 대학마다 요구 조건으로 내건 TOPIK의 점수로 인해 학생들은 유학생들은 한국어 학습의 이중의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한국어 학습 영역간의 관계

한국어 학습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상 한국어, 전공 한국어, 능력 인정 시험 한국어로 나뉘어진다. 한국어 학습 과정의 형태와 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학습 영역별로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다. 이는 <표 5>와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표 5> 한국어 학습 영역간의 관계

학습영역	공통점	차이점
일상한국어	성격, 모국어 사투리, 미묘한 한국어	다양한 경험의 영향력
전공한국어		학문체계의 학습 필요
TOPIK		독립영역

일상한국어와 전공한국어 학습에서 유학생들의 공통적인 경험은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첫째, 성격 특성은 모든 영역에 걸쳐 유학생들의 한국어 학습경험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연구 참여자 중에서, 모국에서도 사람과 어울리기 좋아하고 수다 떨기를 좋아한다고 이야기한 유학생들은 자신이 한국어를 다른 사람들보다 잘 습득하였다고 생각하였다. 실제로 연구 참여자들의 한국어 실력은 자신이 외향적이라고 표현한 경우 더 나은 경향을 보였다. 활발한 성격은 언어학습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태도로 임하게 되며, 한국 친구들을 활발하게 많이 사귀고, 되도록 한국말을 사용하며 어울리는 기회를 자주 만들어서 한국어를 연습하는 시간이 길어지도록 하였다. 전공수업에서도 한국인 친구를 만들어서 과제나 시험 준비에 대한 사항을 묻고, 한국인 학생들로 이루어진 스터디 집단에 끼어드는 등의 전략을 사용하여 전공한국어에 적응하는 시간을 단축하였다.

둘째, 유학생들의 모국어는 한국어 학습에 공통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한자조어가 많은 한국어의 특성은 중국인 유학생들에게는 의미의 이해를 용이하게 해 주었다. 터키인 유학생은 어족이 같고 터키어와 한국어의 어순이 같은 점이 자신의 한국어 습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이야기하였다. 반대로 중국어의 발음과 베트남어의 6성조 억양 특성은 유학생들이 한국어를 바르게 발음하고 소리 내어 말하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하였다. 모국어의 영향은 일상한국어와 전공한국어에 동일하게 영향을 끼치고 있었다.

셋째, 사투리는 유학생들이 일상과 학업영역 모두에서 접하는 부분이었다. 유학생들은 주로 수업시간에 교수들이 구사하는 사투리에 민감한 반응을 보였지만, 시장 등의 일상적 공간에서도 사투리를 접하고 당황한 경험을 이야기하였다.

넷째, 현지에서의 한국어 학습은 유학생들의

한국어의 뉘앙스와 미묘한 차이를 구분할 수 있도록 해 주었다. 유학생들은 고국에서 일정 정도의 한국어 학습을 경험했다 하더라도 한국에 와서 일상생활 중에 독특한 단어를 습득하거나 수업 속에서 한국어에 있는 미묘한 뉘앙스를 구별할 수 있게 되었다고 이야기하였다.

유학생들의 일상한국어, 전공한국어, 능력 인정 시험 한국어 학습에서 드러나는 경험의 차이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첫째, 한국에서의 다양한 경험의 영향은 유학생들의 일상 한국어 습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유학생들이 당구장, 편의점, 식당 등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경험을 갖고 있는 경우 한국인 손님들, 사장, 같이 일하는 동료와의 대화를 통해 한국어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렇게 일상에서 습득된 한국어는 전공 수업의 한국어 이해까지는 이어지지 못하였다.

둘째, 한국어로 이루어진 전공 학문의 체계를 익히는 일이 전공에서의 한국어 습득의 관건이 되고 있었다. 유학생들이 전공수업에서의 한국어를 쫓아가지 못하는 원인은 전공에 대한 배경지식은 물론 한국어로 그 전공의 해당용어가 무엇인지, 그 전문용어를 한국어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었다. 이는 한국의 대학에서 사용하는 전

공 영역의 한국어로 글을 쓰는 화법과 양식, 한국에서 통용되는 용어 사용에 익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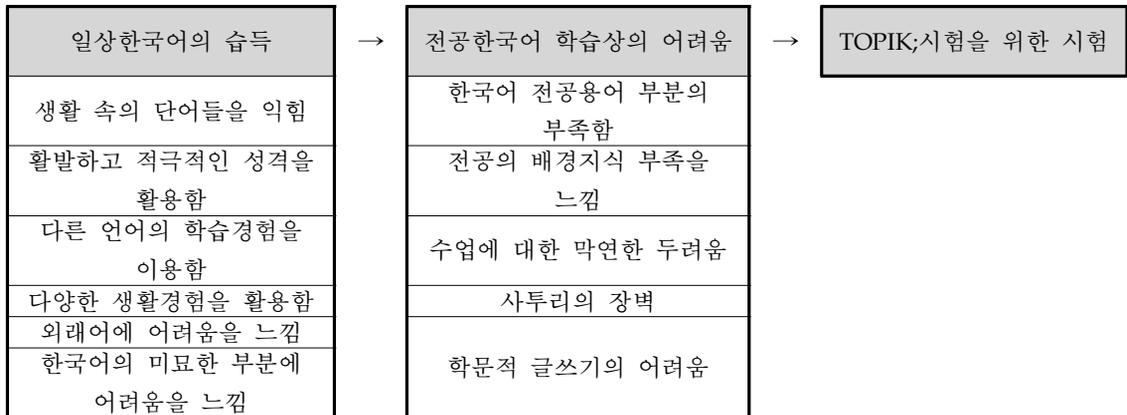
셋째, TOPIK은 유학생들 사이에 일상한국어나 수업에서 사용되는 전공한국어와 달리, 비교적 독립적이고 고유한 영역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일상한국어나 전공한국어가 서로 연관되어 있는 모습을 보였다면, TOPIK은 두 영역과 별개로 유학생들의 한국어 학습에서 독자적인 영역이었다. 유학생들에게 TOPIK은 정답만을 골라야 하는 ‘시험문제 풀기’에 익숙해야 유리한 연습이 필요한 대상이었다. 또한, 일상한국어의 습득이나 전공한국어의 적용에도 그리 도움을 주지 못하는, 시험을 위한 시험일 뿐 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학생들은 대학이 요구하는 점수를 받기 위해 도서관에서 상당시간을 TOPIK 준비에 소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은 외국인 유학생들의 한국어 학습과정의 각 영역간의 관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으며 이를 시각화시키면 <표 6>과 같다.

가. 외국인 유학생들은 일상한국어와 전공 수업에서 사용되는 한국어 학습에 있어서 모두 성격과 모국어의 영향력 아래 놓여 있다.

나. 한국어의 사투리에 대한 반응은 일상생활

<표 6> 국제유학생들의 한국어 학습과정



- 과 전공수업 모두에서 나타났다.
- 다. 일상한국어의 경우 학생들은 한국에서의 여러 가지 다양한 경험을 활용하여 실력 향상을 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 라. 전공한국어 학습에서 가장 큰 관건은 한국의 학문적 체제와 글쓰기 양식에 익숙해지는 일이었다.
- 마. TOPIK은 외국인 유학생들이 일상과 수업에서의 한국어와는 별도로 준비하고 공부하는 특별한 영역으로 자리 잡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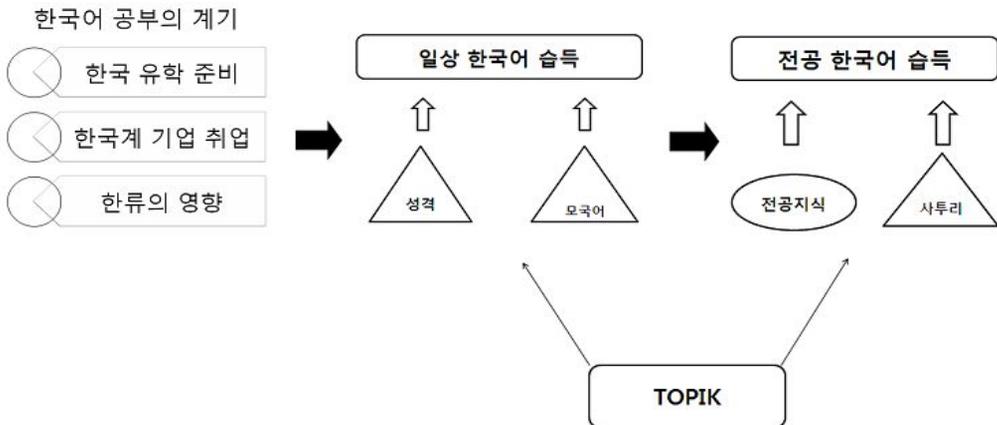
3. 한국어 학습의 과정 모형

유학생들의 일상 한국어, 전공 한국어, 능력 인정 시험 한국어 학습 과정 간에는 공통점과 차이점도 있지만, 이들 학습 영역들은 각기 독립된 방식으로 학습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외국인 유학생들이 한국어를 습득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이들 학습영역들이 상호 영향을 미치면서 한국어의 습득과 활용 능력이 신장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모든 학습 영역에 공통되는 요인들과 개별 학습영역에 고유한 요인들이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외국인 유학생들의 한국어 학습 과정은 아래과 같이 선

택코딩에서의 이야기의 형태로 정리되며, 이는 [그림 1] 과 같이 시각화된 모형으로 제시할 수 있다.

외국인 유학생들은 처음에 한국유학을 목적으로, 한국계 기업에 취업할 목적으로, 혹은 한국 드라마가 재미있어서, 한국 연예인을 좋아해서 한국어 공부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다. 한국에 들어온 이후 유학생들은 제일 먼저 매일 매일의 일상에서 부딪치는 한국어를 습득하기 시작한다. 한국어를 학습하는데 적극적이고 활발한 성격이나 태도는 한국어를 잘 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모국어는 종류에 따라 한국어의 뜻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주기도 하고, 억양이나 발음을 올바르게 구사하는데 방해가 되기도 하였다.

유학생들은 본격적으로 전공 수업에서의 한국어에 적응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수업 한국어를 이해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해당 학문영역에서의 전문용어와 주요한 내용을 파악하는 배경지식이었다. P시의 경우 교수들이 수업에서 구사하는 사투리도 유학생들에게는 어려움으로 작용하였다. 일상에서 말하고 듣는 한국어와는 달리 전공 한국어는 과제에서 학문적 글쓰기를 동반하기 때문에 유학생들은 더 큰 어려움을 느끼게 된다.



[그림 1] 외국인유학생의 한국어 학습과정

TOPIK은 실제로 유학생의 한국어 능숙도와는 별개로 시험을 위한 시험으로 준비해야 하는 것이며, 하나의 정답만을 골라내는 일정 정도의 연습을 필요로 한다. 유학생들은 자격 요건 구비를 위해 TOPIK을 준비하지만 시험점수와 한국어를 잘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인식하게 된다.

일상한국어, 전공한국어, TOPIK 한국어라는 세 가지 영역에서 유학생들은 한국어로 이루어진 매체를 이용한 공부법, 한국인 친구들을 사귀는 방법 등의 전략을 사용하여 자신만의 공부 방법을 터득하게 된다.

세 가지 영역에서의 한국어에 대한 적응은 지속되다가 필요한 점수를 얻고 나면 TOPIK 한국어의 학습은 중지되며, 유학생들은 전공한국어에도 서서히 적응해 나간다. 유학생들을 지속하는 동안 외국인 유학생들의 한국어 실력은 완만히 수평에 가까운 그래프를 보이고 담보되는 듯한 기간을 거친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한국의 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들의 한국어 학습과정을 밝혀내기 위해 심층면담을 실시하고 근거이론적 분석방법을 사용하였다. P시의 19명의 국제유학생들이 연구에 참여해 주었으며, 개방코딩, 축코딩, 선택코딩의 방법으로 유학생들의 한국어 학습과정에 관한 근거이론을 이야기의 형식으로 도출해 내었다.

국제유학생들은 각자의 계기로 한국어 공부를 시작하고, 한국에 입국한 후 일상에서 사용되는 한국어를 습득하게 된다. 유학생들은 첫 학기 수업이 시작되면 자신의 전공에서 사용되는 수업의 한국어에 대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적응해 나가게 된다. 유학생들은 TOPIK을 준비하지만, 이 시험을 위한 공부는 일상한국어나 전공한국어와 무관하게 진행되며 한국어 실력과 상관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한국어에 대한 숙달

필요성과 일련의 어려움을 겪으며 외국인 유학생들은 한국어 실력이 향상되거나 담보되는 느낌을 가지면서 한국어 학습과정을 거치게 된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외국인 유학생들은 한국에 입국 후, 일상생활에서의 한국어를 습득하기 시작한다. 성격과 모국어, 다른 언어 학습, 아르바이트 등 경험의 영향을 받았으며, 이 시기에 유학생들은 한국어의 낱안스와 미묘한 어려움을 느낀다.

둘째, 외국인 유학생들은 전공 수업에서의 학문적인 한국어에 적응하는 단계로 접어든다. 유학생들은 학문영역에서의 한국어 전문용어, 전공 지식의 부족, 교수의 사투리, 학문적 글쓰기로 인해 전공에서 사용되는 한국어에 어려움을 느낀다.

셋째, 외국인 유학생들은 TOPIK을 준비하고 있거나 준비한 경험이 있지만, 대체로 이 점수는 일상 한국어와 전공한국어 실력과는 별개의 문제로 인식하였다.

넷째, 성격요인, 모국어, 사투리, 한국어의 미묘한 낱안스는 일상 한국어와 전공 한국어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양한 경험의 영향을 받는 일상 한국어와 달리 전공수업에서의 한국어는 한국의 학문체계에 대한 별도의 학습을 필요로 하였다. TOPIK은 유학생들에게 독립된 영역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한국어 학습 과정은 학습영역별 학습의 상호연관성 속에서 완성되어 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서 밝혀진 결과에 따르면, 대학에서 한국어 과정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때 그리고 전공 수업을 계획하거나 수행할 때, 유학생들의 성격이나 다양한 언어 및 생활 체험, 전공 관련 배경 지식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수업 계획에서 한국어 자체의 낱안스와 사투리, 외래어와의 친숙성, 그리고 한국어 사용의 맥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외국인 유학생이 매사에 매우 적극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도 일상 한국어를 사용할 때와는 달리 수업 장면에서는 전공의 배경적 지식과 난해한 학술 용어와 전문적인 방법론 등의 부족으로 소극적으로 참여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의 방법으로 다음과 같은 점들을 제안할 수 있다. 일상 한국어 습득은 큰 어려움이 적으므로 전공 한국어의 학습과 능력 인정 한국어 학습에 한정하여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할 수 있다.

첫째, 각 전공이나 단과대 중심으로 한국어에 대한 계열별 한국어 교육과정 개발이 필요하다. 한국어의 학문적 양식과 어법을 익히는 일은 전공영역의 지식을 습득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하다. 특정한 전공에서 사용되는 용어와 그 영역의 내용을 익히는 일은 또 다른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과 같다고 한다. 외국의 연구물은 영어가 모국어라서 일상적인 대화에 능숙한 학습자라도 전공영역의 영어는 '새로 배워야 할 언어'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Zwiers, 2004; O'Donovan, 2008). 한국인에게도 한국어로 이루어진 전공의 내용을 습득하는 일은 또 다른 외국어를 학습하는 것처럼 익숙해지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는데, 외국인으로 어떤 전공영역의 외국어를 학습하는 일은 추가의 노력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이에 이해영(2004)도 교양과목을 중심으로 노출 빈도가 높은 어휘를 묶어서 지도하고 학습기술을 함께 교육하는 학문 영역별 한국어 교육에 대한 제안을 한 바 있다. 세분화된 전공으로 한국어 학습이 이루어지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계열별로 공통되는 교과목에서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학문적 전문용어나 기초적인 내용을 한국어로 미리 학습하는 코스를 개발하는 일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둘째, 한국어 학습에 대한 외국인 유학생들의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해 공부 방법에 대한 개별 지식을 공유 가능한 집단적 지식으로 발전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연구 참여자인 유학생들은 일

상한국어와 전공에서의 한국어 학습을 통하여 자신만의 한국어 학습방법을 개발해 놓고 있었다. 본 연구를 위해 진행된 면담에서 외국인 유학생들은 자신만의 한국어 학습 방법을 상당수 제시해 주었다. 비록, 한국어 매체를 이용하거나 한국인 친구들을 통한 한국어 연습이 주류를 이루지만 유학생들이 제시해 주었던 공부 방법은 비교적 구체적이고 자세하였다. 그러므로 이들의 한국어 학습에 대한 노하우가 서로 공유되고 네트워크화 될 수 있다면 외국인 유학생들의 한국어 학습은 일상회화는 물론 전공 영역의 한국어에서도 효율적인 진보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국제유학생들의 한국어 학습의 전략과 노하우가 암묵지의 영역을 벗어나 상호 교류되고 공유될 수 있도록 사이버 학습실을 고안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셋째, 외국인 유학생들의 한국어 학습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유사한 전공의 한국 학생들도 도우미로 배치하여 전공과 수업영역의 한국어에 대해서도 익숙해지도록 하는 장치마련이 필요하다. 연구 참여자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현재 유학생 도우미들은 스스로의 관심과 자발적인 봉사를 위해 모인 학생들이어서 도우미를 매개로 한국인들과의 친분을 쌓기에는 비교적 용이하나, 유학생들의 계열이나 학과 전공의 특징에 맞게 학업적인 부분에서 도움이 되기는 어렵다고 한다. 유학생 도우미 프로그램이 외국인 유학생들의 학업적응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계열과 전공에 맞는 도우미 배치와 학업 측면의 한국어 지원을 위한 기초적인 교육도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유학생들이 입학 전에 입학을 준비하기 위해 수강하는 한국어 수업 외에도 입학 후에 듣는 한국어수업을 보장하되 이때에는 발표와 토론, 리포트 쓰기, 논문작성법 등 별도의 언어 영역별 세부 코스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국제 유학생들이 취약하다 판단하고 있는 수업에서의 발표와 토론에 대해 한국어 교육 영역에서 훈련시키는 프로그램의 개발을 고려해 볼 수 있

다. 발표요약물이나 한국어로 파워포인트 자료를 제작하는 방법, 요점제시 및 예시사용 등 발표에서의 기술과 예상 질문에 대한 토론의 연습을 내용으로 하는 훈련이 제공된다면 국제유학생들의 전공 수업에서의 참여를 이끌어 내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다섯째, TOPIK의 실용화와 시험 준비가 실제적인 한국어 학습과 연결점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구안되어야 한다. 역사가 그리 길지 않은 시험의 공통된 약점이겠지만 현행 한국어능력시험은 일상한국어와도, 전공한국어와도 괴리를 보이고 있다. 문법과 문어체 중심의 시험문항들은 국제유학생들의 한국어 학습에 대한 에너지가 중북 낭비되도록 하고 있다. 국제 유학생들은 일상 한국어에 익숙해지는 동시에 전공 한국어에도 적응해야 하고, TOPIK에도 일정수준의 점수를 획득해야 하는 이중 삼중의 부담을 지고 있다. TOPIK이 일상한국어에 초점을 맞추거나, TOEFL과 같이 학문적 한국어를 위한 별도의 시험을 개발하는 방안도 한국어 교육 분야에서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TOPIK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유학생들이 일상한국어와 전공한국어와 관련되는 지점을 발견할 수 있도록 정보를 구분해주고, 실용적인 한국어에 접목시켜 시험공부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교재의 개발도 모색해보아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의의는 한국의 대학과 대학원에서 학업하고 있는 외국인 국제 유학생들의 한국어 학습과정을 근거이론적으로 접근하여 밝혀내었다는 점에 있다. 연구의 결과와 교육적 시사점은 한국의 대학에서 늘어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들을 지도하고, 언어습득을 통해 적응을 조력하고자 할 때 유용할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 문헌

강이화 · 김아영 · 김대현(2007). 중국인 유학생들의 대학생활 적응경험에 관한 연구, 교육사상

- 연구, 21(3), 65~88.
- 김대현 · 김아영 · 강이화(2007). 중국인 대학원 유학생들의 학업적응 경험에 대한 근거이론적 연구, 아시아교육연구, 8(3), 159-187.
- 김재우(2005). 재한 중국인 유학생이 느끼는 차별과 대응방식이 문화적응 유형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충북대학교.
- 문성미(2003). 간질을 가진 청소년의 사회심리적 적응 과정에 대한 근거이론,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 배현숙(2001). 한국어 교육과정의 현황과 문제점, 우리어문연구, 17, 55~75.
- 안경숙(2001). 초등학생의 친한 친구 사귀기 과정: 근거이론 접근방법으로. 박사학위논문, 서울여자대학교.
- 안경화(2006). 한국어 교육방법론의 재검토: 한국어 쓰기 교수학습법의 현황과 과제. 국어교육연구, 18, 61~90.
- 엄혜경(2003). 국내 외국 유학생의 한국문화적응에 관한 연구: 서울 5개 대학교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 오지혜(2008). 이야기 문법을 활용한 한국어 고급 학습자의 이야기 쓰기 교육 연구, 작문연구, 7, 275~305.
- 원효원 · 강미라(2002).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생의 산업현장 적응 현황 분석, 수산해양교육연구, 14(2), 229~248.
- 이경화 · 정혜영(007). 중학생의 스트레스 및 통제소재와 학교적응의 구조분석, 수산해양교육, 19(1), 8~18.
- 이은영(2005a). 유학생을 위한 한국어 연구: 쓰기 교육을 중심으로, 언어학, 13(3), 1~16.
- 이은영(2005b). 외국인을 위한 외래어 교육. 중국인 학습자를 중심으로, 한국어학, 28, 167~183.
- 이해영(2004). 학문 목적 한국어 교과과정 설계 연구, 한국어 교육, 15(1), 137~164.
- 이해영(2001).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한국어 교육, 이중언어학, 18(1), 279~301.
- 임소영(2003).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의 학습 목표, 한말연구, 13, 190~215.
- 장연(2005). 재한 중국인 유학생의 한국어 숙달수준 및 문화적응 스트레스 분석, 석사학위논문, 목포대학교.
- 최태일(2001). 주한 외국인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 한국교육개발원(2007). 2007년 국내외국인 유학생

- 통계, 한국교육개발원.
- 허춘영(1998). 제한 중국유학생의 문화적응과 정신건강 실태연구: 한족, 조선족 유학생간의 비교, 박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 Brown, L.(2008). Language and anxiety: an ethnographic study of international post-graduate students, *Evaluation and Research in Education*, 21(2), 75~95.
- Glaser, B. G.(1992). *Emergence vs forcing: basics of grounded theory analysis*. CA: Sociology Press.
- Huck, S. W.(2000). *Reading statistics and research*, New York. Addison Wesley Longman, Inc.
- O'Donovan, E.(2008). Narrow the academic language gap to reduce the achievement gap, *District Administration*, 44(2), 58~59.
- Poyrazli, S. & Kavanaugh, P.(2006). Martial status, ethnicity, academic achievement and adjustment strains: the case of graduate international students, *College Student Journal* 44,(4), 767~780.
- Qin, D. & Likes, M. B.(2006). Reweaving a fragmented self: a grounded theory of self-understanding among Chinese women students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International Journal of Qualitative in Education*, 19(2), 177~200.
- Roy, A.(1997). Bilingualism and contractive analysis in languages: a comparative study on foreign language acquisition in India and Korea, *By-linguistics*, 14, 323~345.
- Seo, S.(2005). A hermeneutical study of older Korean graduate students' experiences in American higher education: from Confucian to Western educational values, *Journal of Studies in International Education*, 9(2), 164~187.
- Shigaki, I. & Simth, S.(1997). A cultural sharing model: American buddies for international students, *International Education*, 27, 5~21.
- Strauss, A & Corbin, J.(1998a). *Basics of qualitative research: grounded theory procedures and techniques*, London. Sage Publications.
- Strauss, A & Corbin, J.(1998b). *Basics of qualitative research: techniques and procedures for developing grounded theory*, Second Edition. London: Sage Publications.
- Tran, L. T.(2008). Unpacking academic requirement: international students in management and education disciplines, *Higher Education Research & Development*, 27(3), 245~256.
- Wesche, M & Lee, K.(2000). Korean students' adaptation for post-secondary studies in Canada: a case study, *Canadian Modern Language Review*, 56(4), 637~690.
- Yeh, C. & Inose, M.(2003). International students reported English fluency, social support satisfaction, and social connectedness as predictcotrs of acculturative stress, *Counselling Psychology Quarterly*, 16(1), 15~28.
- Zwiers, J.(2004). The third language of acdemic English, *Educational Leadership*, 62(4), 60~63.

-
- 논문접수일 : 2009년 09월 16일
 - 심사완료일 : 1차 - 2009년 11월 04일
 - 게재확정일 : 2009년 11월 11일